



제44회

# 평신도 주일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 주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 주최 지방 사회평신도부

**발 행 일**  
2022년 5월 9일

**발 행 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감리회관 16층  
T. 02)399-4346~8 F. 02)399-4350  
kmc.or.kr

**편 집 인**  
총무 최창환 장로

**편집·디자인**  
그리심

비 매 품

## C O N T E N T S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 I. 평신도가 희망입니다 / 이 철 감독회장

### II. 웨슬리 정신을 따르는 평신도 / 최창환 총무

### III. 설교자료

- 베레스 게이트 / 김정국 목사
- 다시 교회로, 다시 제자리로 / 유관수 장로
- 복된 삶으로 초대받는 성도 / 이정숙 장로

### IV. 예배자료

- 평신도 기도주간 기도문 / 한희철 목사
- 공동예배문 / 가정예배문 / 김정희 교수

### V.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

- 평신도주일 성수방법
- 평신도주일 성수 사례 / 가나안교회 (웨슬리안타임즈 기사)

### VI.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선언문

### VII. 첨부자료(평신도주일 성수결과보고서)



## 평신도가 희망입니다

이 철 감독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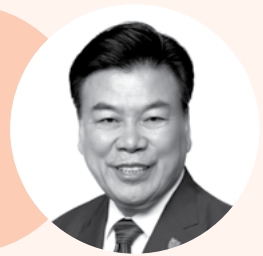
해마다 6월 첫째 주를 앞둔 한 주간을 평신도 기도주간으로 보내고 난 뒤 평신도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주간이 되고, 간증을 함께 나누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평신도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오랫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상황이 일상 회복단계로 접어들어 다시 일어서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평신도주일은 함께 간증을 나누며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주고, 감리교회 평신도가 ‘희망’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회복”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평신도주일의 주제입니다. 1748년 페로네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 존 웨슬리는 “종교는 부정(否定)이나 무상해주의(無傷害主義)로 성립된 것도 아니요, 형식이나 덕행이나 은혜받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나 경건한 행동이나 자선사업으로 성립된 것도 아니다. 종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마음에 인치는 것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내부적 의(義)요, 또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다.”라고 썼습니다. 정결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품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희망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희망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 목회자와 성도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헬라어인 ‘라이코스’를 클레멘트가 사용했고, 중세시대에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

던 단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성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신도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평신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역할을 부여할 만큼 평신도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평신도들의 사역과 참여가 없었으면 초기 감리교회 운동의 발전과 확산은 불가능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감리교회의 역사는 평신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30년 한국감리교회가 자치시대를 열었을 때 미국감리교회보다 앞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목회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한국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의 신앙정신을 시작부터 구현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한국감리교회 평신도의 역할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성경이 처음 전해졌을 때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교회 설립의 주역이 바로 평신도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신앙으로 민족계몽을 이끌었고, 민족의 수난 현장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동참하며 민족문화와 역사 전통을 지키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교회 분열의 시련 속에서 ‘하나 된 감리교회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교회부흥과 사회개선에 앞장서는 실천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한국감리교회의 평신도는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한복판에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으로 희망이 되었습니다.

1979년 평신도주일을 제정한 것은 평신도사역의 전문화와 평신도를 통한 부흥과 사회구원을 향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회에 평신도가 희망임을 보여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주일이 평신도주일입니다. 복음전도자와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어 사회 속에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감리교회가 영국사회를 개혁하며 든든히 서가게 했듯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평신도, ‘다양성 속의 일치’를 위한 밑알이 되는 평신도로 자리매김하여 서로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기대합니다.



## 웨슬리 정신을 따르는 평신도

**최창환** 장로  
사회평신도국 총무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79년 3월 총회결의로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주일로 지정하여 지키며, 평신도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결단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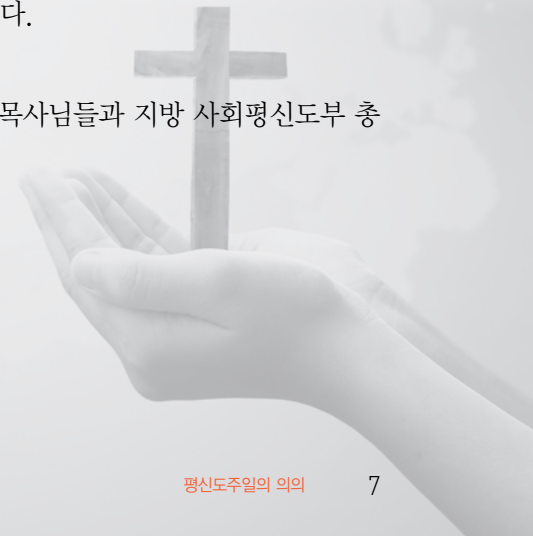
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는 우리의 교회 현실을 바로 보고 존중과 협력의 관계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영성이 상실된 권위주의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세상의 빛인 평신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양육하여야 하고, 평신도들은 목회자가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존중하고 상호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함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 평신도 주일은 6월 5일로 제44회를 맞이합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평신도에게 희망을 두고 구원과 성화를 위한 사역자로 평신도를 훈련하여 설교 단상에 세우고, 전도사역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우리는 웨슬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깨닫고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사역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 성화를 통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며, 사회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 웨슬리의 정신을 잘 지켜 멋진 감리교인으로 평신도주일을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평신도주일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동안 닫혔던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예배와 소모임들이 회복되어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취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는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에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평신도주일 성수를 도와주시는 목사님들과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베레스 게이트

창세기 38:24~26

김정국 목사

서울남연회 송파지방회 임마누엘교회

창세기 38:24~26

<sup>24</sup>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sup>25</sup>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sup>26</sup>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으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샬롬!

평신도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제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신학자 하니 콕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물 위

를 떠다니는 배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절제해야 하는 일들도 많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적고, 원대로 되지 않는 일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이트’라는 말 아시나요? 비리, 음모, 계획... 이러한 조금은 안 좋은 단어로 알고 계실 텐데 게이트라는 단어는 숨겨진 큰 사건이나 스캔들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베레스 게이트”, 과연 베레스라는 이름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인들을 보면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에서는 분명히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의 한 명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sup>3</sup>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태복음 1:3)

얼핏 보면 예수님의 족보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는 성경을 좀 아신다는 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만합니다. 유다와 다말은 부부가 아닙니다.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입



니다.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식이 메시아의 족보를 계승하는 사람이 되었다니.... 인간들의 상식과 지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날카로운 영적 대립을 만들어 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엘, 둘째 오난, 셋째 셀라입니다. 다말은 유다가 아들 엘과 결혼시킨 여인이었습니다. 엘이 여호와 앞에 죄를 지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다말은 당시 히브리 관습법에 따라서 계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계대 결혼’은 수혼이라고 하죠. 영어로 ‘Levirate law’ 라고 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대를 잇게 해주고 생계를 책임져주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자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에 대를 잇고 자녀를 생산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난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씨를 주지 않고 잠자리만 같이하게 됩니다.

지금 다말에게 아이를 갖는 일은 단순히 아이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데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러한 형수의 어려움을 자신의 쾌락 방법으로 사용한 꼴밖에 안 됩니다. 이 오만한 오난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네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셀라도 위의 두 아들처럼 될까 봐 걱정했던 것이 유다의 본심입니다. 다말이랑 엮인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셨으니 셀라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딸이 죽고 유다는 딘나라는 지역으로 여행을 갑니다. 유다가 딘나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거리의 여인처럼 유다를 기다립니다. 지금 다말의 행위를 윤리적으로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말은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으로 집안 남자들 모두와 잠자리를 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다말은 유다 집안의 대를 이음으로써 자신이 가문의 어엿한 여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관습에 의하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간음죄와 근친상간의 죄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말에게 이 일 말고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다말을 만난 유다는 자신을 유혹하는 거리의 여자가 자기의 며느리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한 채, 염소 새끼를 나중에 주기로 하고 그 증거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먼저 다말에게 몸값으로 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석 달 후에 유다가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유다가 분노를 하며 “어떻게 니가 그럴 수가 있어?” 하며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불에 태워죽이라는 것은 흔적



을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극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다 말이 끌려가면서 유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sup>25</sup>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까?

<sup>26</sup>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으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제서야 유다는 자신이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유혹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바꾸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불결한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결하다고, 이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따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 한두 가지입니까?

에스겔에게는 아내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살에 아들을 주고 다시 내놓으라 하십니다. 옴은 당대에 가장 선한 사람이었지만 상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근친상간의 족보에서 태어나다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머리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잘못은 유다가 하고, 잘못은 다말이 하고, 잘못은 엘이 하고, 잘못은 오난이 했는데, 이 모든 일 가운데도 올바른 성취를 이뤄 내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있습니다.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근친상간의 족보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족보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선한 결과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평신도 여러분의 삶이 고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 다시 교회로, 다시 제자리로

사무엘상 7:3~13

**유관수** 장로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경기연회 안산남지방회 반월중앙교회

사무엘상 7:3~13

<sup>7</sup>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sup>8</sup>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sup>9</sup>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sup>10</sup>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sup>11</sup>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쫓더라 <sup>12</sup>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sup>13</sup>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와 그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매년 브라질에서는 삼바축제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입니다. 이 축제의 공식 명칭은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중의 카니발이라고 하는 ‘리우카니발’은 열정적인 삼바 춤과 화려한 가장행렬 그리고 과다 노출과 광란에 가까운 무질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니발이란 축제는 사순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카니발은 라틴어 ‘카르네 발레’에서 왔습니다. ‘카르네’는 ‘고기’라는 말이고 ‘발레’라는 말은 ‘그만’ 또는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고기여, 안녕! 고기는 그만!’이란 뜻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금욕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고기를 많이 먹어두자는 것에서 시작된 축제입니다. 그래서 카니발은 보통 사순절 시작 3~7일 전에 열리는데 이는 본격적인 절제와 금욕이 시작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카니발은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한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카니발은 사순절 준비라는 본래 취지와는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만 광적으로 몰두하여, 카니발이 끝나도 이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  
종케 됩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로 교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  
역지침에 따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현장예배가 다시 시작  
되기만 소망했습니다.

성도들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 예배를 지  
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의 편안함에 익숙해  
졌고 결국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  
다.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선택한 비  
대면 예배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교회에 출석하며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권력자  
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 속  
에서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방 땅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여 풍요의 신들을 섬기며 세상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블레셋이라는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  
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들에게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선포합니  
다.

사무엘상 7:3-4

“3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  
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  
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도전과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함께 모이기에  
힘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  
할 때 분명 세상 앞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입니다. 사울의 진노로 인해 다윗  
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 땅에 이르게  
됩니다. 가드는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의 땅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적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블레  
셋 땅에서 죽임을 당할까 봐 미친 척합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  
치광이 모습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  
는 수치입니다. 이후 여러 사건이 있고 난 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가야 할 곳이 사울의 영향력 때문에 위험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으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5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다시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다의 땅에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땅이며, 명하신 땅이라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며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다시 교회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환경적 위험과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땀을 흘리며 예배할 때 블레셋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졌기에 세상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블레셋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힘 블레셋이 참패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이들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13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와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지켜 주십니다. 지금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복된 삶으로 초대받는 성도

신명기 30:19~20

**이정숙** 장로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서울연회 도봉지방회 도봉교회

신명기 30:19~20

<sup>19</sup>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sup>20</sup>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믿는 자, 성도 된 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는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섬김으로 헌신합니다. 또한 교회공동체 밖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처음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한 노력을 가지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지켜내야 할 복된 삶의 모습을 자꾸 놓치게 합니다. 성도 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와 섬기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데서 멀어지고 다른 길로 접어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맘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신 30:2)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지내다 보면 스스로 어디에 서 있는지도 잊고 습관적으로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일과 과제, 주변의 관계들 속에 끌려 다니다 보면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잃기 쉽습니다. 지치고 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준비하지 않은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처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생기를 잃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은 가까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를 가깝



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순간에 감각을 살려 내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의 음성을 찾아 그 뜻을 따르는 것, 멈추어 서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윤을 취하지 않고 순하고 착하기만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양보의 마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각박하다 원망만 하며 뒤흔칠 수 없는 마음에 남들처럼 욕심도 내어 보고, 경쟁에서 이기려 합니다. 그 가운데에선 지친 영혼을 달랠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다치고 상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어렵고 힘겹게만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있고 망설임과 부끄러움이 있긴 하지만 점차 무뎌져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하하고자 하는 마음이 머뭇거리지고 그 머뭇거림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 30:11)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는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 30:14)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일이라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매우 가까이 우리의 말과 생각, 마음에 있으니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존중과 추앙을 받는 성인(聖人)처럼 되는 것도, 성직자, 사역자가 되는 길도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의 부와 명예로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고 근사하고 감사하고 귀한 순간순간이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의 순간을 많이 만들어 낸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복된 길을 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멈추어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의지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동행함을 확신한다는 것은 불안과 막막함이 아니라 안정과 평안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삶의 영역은 유한합니다. 재산도, 일자리도, 사람관계도 나의 마음대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영역 속에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선택한다면, 우리 마음의 폭은 얼마든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상실하고 소란함에 흔들리고 혼란 속에서 헤매게 될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을 마음에 중심에 두고 살

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의 의지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마음의 중심을 되찾고 여호와와 말씀을 청중하고자 하면 긍휼하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한 의미있지만, 분주함에 익숙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지나가는 사람, 매번 일어나는 일들로 생각하고 놓치고 맙니다. 이때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고,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순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차분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필 여유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의미들을 찾아 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순간 깨어있고자 노력하고 점차 순간들을 늘려 하나님을 만나는 충만함을 경험해 봅시다.

분주함을 멈추고 고요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풍성한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는 마음의 울림을 만날 때 우리는 약속된 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치고 곤한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화로 채울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 마음을 기울여 주님 주시는 복된 삶으로 초대받고 초대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 평신도 기도주간

5월 30일(월) ~ 6월 4일(토)

한희철 목사

서울연회 성북지방회 정릉교회 담임목사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쟁깃날이 닿지 않은,  
오늘 우리는 황무지(荒蕪地)입니다.”

돌맹이가 많은 험한 밭을 갈 때, 혹은 땅을 깊게 갈아엎어야 할 때는 소 두 마리를 부렸습시다. 그것을 ‘겨릿소’라 불렀습시다. 겨릿소는 일의 경험 많은 ‘안소’와 아직은 서툰 ‘마랏소’로 이루어집니다. 일을 할 때 농부는 회초리를 안소 쪽에 잡았습시다. 안소만 제대로 가면 마랏소는 어렵지 않게 따라오기 때문입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11:29)는 주님의 말씀은 “와서 내 겨릿소가 되어주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밭을 갈자”는 주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갈아엎을 힘이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은 주님께서 안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매도 우리 대신 주님이 맞으셨고요.

너무 오랫동안 주님의 쟁깃날이 닿지 않은, 오늘 이 땅은 영락없는 황무지입니다. 2022년 평신도주간을 맞아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기경하는 사랑의 노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5.30(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태복음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여덟 가지 복 중의 하나로 일러주신 주님의 말씀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곡식을 까부를 때, 어머니들은 키질을 했습니다. 거뒀던 곡식을 키 안에 올려놓고 까부르기 시작하면, 솟았던 곡식은 키 안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 남았고 검불과 지푸라기는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알곡만 남았습니다.

주님, 마음의 깨끗함은 키질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불이 바람에 날리듯, 주님께서 우리를 키질하셔야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키질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심과 욕심, 어둠과 두려움, 슬픔과 상처, 낙심과 절망,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원하지 않는 것들과 뒤섞인 우리를 키질해 주시기를 빕니다. 바람이 검불을 날리듯 성령으로 우리 안의 온갖 검불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시편 51: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재주는 얼마나 용한지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서는 대신, 말씀을 통해 숨기도 합니다. 꿩이 눈 속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에 안도하듯이, 말씀 앞에 우리를 숨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나단의 지적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지만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단의 목을 치는 대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시 6:6)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시 51:4)는 말은 많은 순간 우리의 도피처가 되곤 합니다. 사람들 앞에 큰 죄를 짓고도 주님께만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훨씬 가볍고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을 왜곡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스스로 죄 없다 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1(화)

정직한 마음

## 6.1(수)

### 하늘바라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이  
멀도록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사야 38:14

나는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  
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둥지기입니  
다. 우르르 쿵쿵 천둥소리 울리고 비가 내려야 그 은총에 기대어 살  
아가는, 하늘이 심고 하늘이 거두는 천수답(天水畝)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하늘바라기입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은 우리 삶의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  
왔던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아프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 다.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시간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점차 예배에서  
떨어지는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는 것도 큰 부끄러움입니  
다.

중년의 나이에 죽음을 통보받았던 히스기야를 생각합니다. 앗시리아  
의 공격을 앞둔 시점, 그가 느꼈을 무력감에서 이 시대 우리의 무력  
감을 봅니다. 다가온 상황은 절박한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는 없습니다.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본 히스기야  
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늘을 바  
라보는, 하늘바라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리하였듯,  
우리도 열싸안기를 하게 하소서

마가복음 1:41~42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  
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주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그럴듯한 명분 하나를 주었습니다. 사회  
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  
니다. 무관심과 외면을 배려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따  
뜻한 관심과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나병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 기겁을 하며 물러  
서거나 호통을 쳐서 쫓아내지 않으신 주님을 떠올립니다. “깨끗해져  
라.” 말씀을 하시기 전,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 주셨습니다.  
말씀 한 마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먼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모습 앞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주님,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한 이에게 거룩한 손을 내미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누군가의 아픔을 말로만 위로  
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에 조금 뿌리듯 서툰 충고만 내뱉지 않게 하  
소서.

주님께서 내미신 손은 열싸안기였습니다. 얼을 감싸 안는, 지극한 사  
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웃 아픔을 열  
싸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6.2(목)

### 열싸안기

## 6.3(금)

### 자기 행복

이제 우리 하나님께 지게 하소서

누가복음 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 우리가 성경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글자대로 이해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 또한 바로잡아 주시기를 빕니다. 말씀을 안다는 이유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먼지 하나만 도 못한 내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을 가두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어리석게도 우리는 기도를 드리며 압복나루 야곱을 떠올리곤 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물러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리시도록 폐를 쓰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뜻 아뢰기에 급급합니다.

주님, 아픈 마음으로 구하오니 이루어 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지게 하소서. 얼마든지 진심으로 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을 이기려는 마음을 기도로 물리치게 하소서.

고난의 잔 십자가를 앞두고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도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감당할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누가복음 3:2

안나스와 가이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주님, 한 사람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때로는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니 도대체 사람의 무게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는 말씀은 엄청난 무게로 다가옵니다. 말씀의 암흑기라 불리는 친구약 중간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00여 년의 긴 침묵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의 요한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디베료, 본디오 빌라도, 헤롯과 빌립, 안나스와 가이바라는 이름들과, 황제, 총독, 분봉 왕, 대제사장이라는 지위, 당대를 쥐락펴락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무런 지위도 기록되지 않은 요한은 한없이 가볍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요한이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열거된 이름들과 지위 모두를 합한 것보다도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가 선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하게 하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지닌 우리 믿음의 무게가 세상 무엇보다도 무겁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6.4(토)

### 한 사람의 무게



**김정희** 교수  
목원대학교 신학과

김정희 교수는 목원대학교에서 신학과 학과장과 학생상담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MUB연구소 소장으로 매년 교회교육 교재를 개발 및 출판하고 있다. 그 외 제38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총무와 이사 및 실버평생교육협회 이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남부연회 대덕지방 주안교회 소속목사로 헌신하고 있다.

2022년 평신도주일 예배문은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회복”이라는 주제 하에 공동예배문과 가정예배문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예배문에서 눈에 띄는 순서는 참회의 기도와 용서의 말씀, 결단기도, 파송결단과 파송찬양입니다. 참회의기도와 용서의말씀은 한 주간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통해 예배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단기도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갖춰야 할 예배자, 제자, 헌신자, 전도자로서의 자세를 일깨우고 다짐하는 기도문입니다. 파송결단과 파송찬양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성도가 의지해야 할 분이 한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고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정예배문은 공동예배문과 달리 CCM와 찬송가를 접목한 예배문으로, 가족 구성원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담았습니다. 각각의 찬양은 예배에 대한 자세를 일깨우고, 성도로서의 본분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 합니다. 특별히 가정예배문에서 눈에 띄는 순서는 중보기도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향한 기도 중보자가 되어 세상 속 성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기를 바라며 예배순서에 담았습니다.

사회자 : 장로 대표

- \* 입 레 송 .....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함 께
- \* 예배로 부름과 기원 ..... 요한복음 4:24 ..... 집 레 자
- \* 송 영 ..... 6장 (목소리 높여서) ..... 다 함 께
- \* 참회의 기도 ..... 다 함 께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죄인 된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사오니 주님의 분노로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며 세상과 사람에게서 도움을 찾은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한순간도 진정으로 믿을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행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용서의 말씀 ..... 시편 17편 1절 ..... 집 레 자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 \* 말씀교독 ..... 시편 100편 (교독문 44번) ..... 집 레 자
- \* 삼위영가 ..... 21장 (다 찬양하여라) ..... 다 함 께
- 기 도 ..... 권 사 중
- 성경봉독 ..... 집 사 중
- 찬 양 ..... 446장 (주 음성 외에는) ..... 다 함 께
- 설 교 ..... 설교자(평신도)
- 결단 기도 ..... 다 함 께

거룩하신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경청하고, 깨닫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섬기듯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몸 된 지체들을 섬기고 교제하는 참 헌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좋은 일이트 어려운 일이트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봉헌찬양 .....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 함 께
- \* 봉헌기도 ..... 말 은 이
- 교회소식 ..... 집 레 자
- \* 파송결단 ..... 시편 121편 ..... 다 함 께
- \* 파송찬양 .....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 다 함 께
- \* 축 도 ..... 목 사
- \* 후 주 ..... 반 주 자

\* 표시한 곳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준 비 찬 양 ..... 완전하신 나의 주 ..... 다 합 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목 상 ..... 요한복음 4:24 ..... 말 은 이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합 께  
 찬 양 .....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다 합 께  
 기 도 ..... 말 은 이  
 성경봉독 ..... 말 은 이  
 말 씀 ..... 가족대표  
 중 보 기 도 ..... 서 로  
 찬 양 .....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 다 합 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시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케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 기 도 문 ..... 다 합 께

\* 각 순서는 가족 구성원이 조화롭게 말도록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성경봉독, 기도순서를 말도록 하여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1. 평신도주일 성수 방법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리회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고 지방에는 평신도부를 두어 매년 5월 마지막 한 주간과 6월 첫째 주일을 온 교회가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예수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구원의 밑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쓰임 받게 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웨슬리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한 성화와 사회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지키는 웨슬리 회심주간과 6월 첫 주일에 지키는 평신도주일을 연계시켜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 사회구원을 위한 헌신 봉사의 계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의 생일입니다.

### 가. 목 적

평신도주일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소명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감리교회의 특별 신앙실천운동이다. 이를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협력하고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며, 평신도단체간의 유대가 강화될 것이다. 평신도주일을 잘 성수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평신도가 되도록 한다.

### 나. 방 법

- 1) ‘평신도주일’ 광고를 2주 전에 교회주보에 게재하여 전 교인에게 홍보한다.
- 2) 평신도주일 1주 전 평신도주간(5.30~ 6.4)은 자료집에 수록한 “기도문”의 ‘말씀과 기도’를 참고하여 기도하는 주간으로 지킨다.
- 3) 자료집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리며, 모든 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4) 신앙의 본이 되는 평신도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자랑스러운 평신도상’을 세운다.





### 다. 평신도주일헌금

개체교회에서 평신도주일을 성수하고 드러진 헌금은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취합하여

- ① 90%는 지방 평신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며,
- ② 10%는 사회평신도국으로 보내 평신도운동 활성화 사업과 불우이웃돕기 및 평신도주일 기념사업에 사용한다.

**| 송금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14211  
우리은행 1005-201-023587  
농협 1277-17-001024  
**| 예금주 |** 기독교대한감리회

### 라.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첨부자료의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7월 31일까지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한다.

- | 제출방법 |** ① 팩스(02-399-4350)  
② e-mail : sa-pyeong@daum.net  
③ 우편: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사회평신도국

## 2. 평신도주일 및 주간 프로그램 예시

행사주간	프로그램	방 법
개체교회	평신도 기도주간 5/30(월)~6/4(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신도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고,</li> <li>• 평신도주일 1주 전 주일에 전 교인에게 ‘주간 기도문’을 배부하며,</li> <li>• 요일별 기도제목으로 기도한다.</li> </ul>
	평신도주일 예배 6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평신도주일 자료집&gt;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리고,</li> <li>• 예배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한다.</li> </ul>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소년소녀가장 초청행사 등)</li> <li>• 불우이웃돕기 물품전달식을 갖는다.</li> </ul>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실천한다.</li> </ul> <p>[감리교인 생활수칙] 전단지 무료배부 문의 ☎02)399-4346</p>
지방	전도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내 교회가 합동 노방전도 때 거리청소를 병행한다.</li> </ul>
	평신도상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봉사상, 전도상, 효자효부상, 다자녀다복상 등을 선정하여 지방 연합행사시 시상한다.</li> </ul>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신도주일 기념사업으로 미자립교회 개보수 재능기부사역을 실시한다.</li> </ul>



6월 첫 주는 평신도주일

## ‘가나안교회, 섬겨주는 평신도주일 예배 드려’

서울연회 마포지방회 가나안교회

마포지방회 가나안교회(담임 최성갑 목사)는 2021년 6월 6일 주일예배를 평신도주일예배로 드렸다.



예배모습

설교를 맡은 김진호 장로는 ‘성경책을 불태울 정도로 극심한 반대를 하신 아버지 몰래 신앙생활을 이어 온 어머니(변백순 권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그 당시에는 반대하는 아버지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 나가시는 어머니 모두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그 당시를 돌아보면 “아버지의 고집은 고집이 맞았으나 어머니의 고집은 고집이 아닌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다”라며 “어머니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은 지금까지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어머니의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아버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4남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소개했다. 김 장로는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 찬양하는 가정으로 인도했고 부족한 사람을 장로라는 영광의



설교 - 김진호 장로

자리에 세워 주셨다”라며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어머니께 참으로 감사하고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어머니의 신앙의 깊이  
에 반의 반이라도 닮아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최성갑 목사는 “그동안의 평신도주일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순서를 맡아 예배를 드려 왔으나, 10년 전 평신도주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헌신, 희생을 통한 충성스런 믿음생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고 목회자가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는 목회자들이 섬김만 받아왔고 사랑을 받아 왔는데, 평신도주일을 통해 작은 사랑을 담아 평신도들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목회자들이 직접 장을 보고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성도들을 섬겨 왔다”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해마다 평신도주일이 다가오면 섬기고 싶은 설레임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뜨거워진다.”라고 말하고 “목회자들도



회중석에서 말씀을 듣는 최성갑 목사



성도를 섬기며 서로 섬겨주는 관계 속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가나안교회는 평신도주일에는 축도를 제외하고 설교를 포함한 모든 순서를 평신도들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예배는 최은주 장로의 사회, 김진숙 권사의 기도, 강미경 권사의 성경봉독(히브리서 11:1, 요한3서 1:2)과 기획위원들의 특별찬양에 이어 김진호 장로가 “믿음, 기도의 확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생일자 축하와 교회소식을 전한 후에 최성갑 목사의 축도로 평신도주일에배를 모두 마쳤다.



사회 - 최은주 장로



축도 - 최성갑 목사





2018년 교역자가 준비한 삼계탕 점심식사

가나안교회는 해마다 목회자들이 평신도주일 점심식사를 삼계탕을 준비하여 섬겨왔으나 2020년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준비를 못했다. 그러나 금년(2021년) 평신도주일을 준비하면서 비록



2021년 교역자가 준비한 샌드위치 도시락



함께 앉아서 식사는 못하지만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는 응원의 뜻으로 샌드위치 도시락을 준비했다.

토요일에 재료를 구입하여 사전 작업을 했고 주일 새벽 5시부터 교역자들이 모여 정성스럽고 고급스럽게 도시락을 싸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전달했다. 특별한 것은 가나안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는 장승일 전도사의 결혼식(5일, 토요일)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인사로 떡을 준비해서 그 풍성함이 더했다.



가나안교회 교역자들

이 기사는 [웨슬리안타임즈] 2021년 6월 7일에 게재된 것으로 좋은 실천사례로 다시 실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선언문

기독교대한감리회 150만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지킬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1.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3.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4.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사회의 부정하고 변질된 모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방지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7.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 제44회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 보고서 ( I )

수 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제 목 : 2022 제44회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보고서

## 1. 교회 현황

[illegible]

## 2. 교회별 평신도주일 주요 행사

구분	교회명	비고
낮 예배		
저녁(오후) 예배		
낮 예배+저녁(오후)예배		

연회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인)

##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 보고서 (Ⅱ)

[지방 연합성회]

1. 일 시 :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2. 장 소 :

3. 참여교회 : 지방 교회 수 \_\_\_\_\_ 교회, 참여 교회 수 \_\_\_\_\_ 교회

교회명	교회명	교회명	교회명	교회명

4. 현금총액 : \_\_\_\_\_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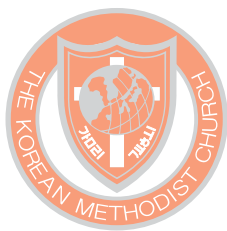
## 5. 연합 행사 내용

--

## 6. 기 타

연회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_\_\_\_\_ (인)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